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 경제 및 금융 동향 1

[참고자료] 주요 경제지표

2. 주간 이슈 4

- 중국 경제현황 진단과 시사점

주요 동향

◇ 유럽중앙은행(ECB), 양적완화정책 연장 가능성 시사

- 유럽중앙은행(ECB) 드라기 총재가 “필요하다면 내년 9월까지 예정된 양적완화를 더 연장할 수 있다”며 양적완화정책 연장 가능성을 시사
- 유로존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나 최근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고, 저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 위험도 있어 필요시 자산 매입규모와 구성, 정책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.
- ECB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현 0.05%로 동결했으며, 유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015년(1.5%→1.4%), 2016년(1.9%→1.7%), 2017년(2.0%→1.8%) 하향 조정

◇ 철광석 등 광물가격, 소비 감소 우려확대로 10년래 최저치

- 9월 2일 기준 철광석 중국 수입가는 톤당 56.7달러로 2014년 평균 가격 대비 41.4% 하락, 7월 8일에는 44.6달러까지 떨어져 10년래 최저치 가격 기록

※ 중국 철광석 수입가격 추이(\$/톤):

190.9('11. 2/15) → 134.7('13. 12/31) → 71.3('14. 12/31) → 44.6('15. 7/8) → 56.7('15. 9/2)

- 중국 철강 소비는 여름 비수기 이후 9월부터 건설 활동 회복과 함께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, 최근 성장 둔화로 소비 감소 우려가 확대되면서 9월 성수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
- 전기동 등 비철금속 광물가격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하락세를 지속해, 전기동 현물가격의 경우 2014년 평균 가격 대비 25.7% 하락, 6년래 최저치 기록

※ LME 전기동 현물가격 추이(\$/톤):

10,124('11. 2/14) → 7,371('13. 12/31) → 6,290('14. 12/31) → 4,887('15. 8/24) → 5,070('15. 9/2)

주요 동향

◇ 이란, 경제제재 해제 앞두고 해외투자 유치 활동 적극

- 이란이 내년 초 경제제재 해제를 앞두고 유럽 등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.
- 2025년까지 알루미늄·희토류·구리·석탄 등 광물자원개발에 약 200억 달러의 투자 희망, 2020년까지 1,850억 달러 규모의 석유·가스 프로젝트 50건 발주 계획 등을 밝히며 투자 권유
- 이란 중앙은행은 경제제재로 동결됐던 해외자산·자금 1,500억 달러 가운데 290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석유화학·가스·광업·도로건설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투입할 계획
- 라우하니 이란 대통령은 “외국인들이 이란 투자를 늘리면 이란 및 역내 점유율 확보로 이란과 투자자 양측이 이득을 보게 될 것”이라며 투자 유치 의지를 강하게 밝힘.

◇ 한국, 8월 수출 감소세 지속 · 7월 생산은 0.5% 증가

-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.7% 감소한 393억 달러, 수입은 18.3% 감소한 350억 달러,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 기록
- ※ 수출증가율(%) : $\Delta 11.0$ (5월) $\rightarrow \Delta 2.4$ (6월) $\rightarrow \Delta 3.3$ (7월) $\rightarrow \Delta 14.7$ (8월)
-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(전년동기대비, 19.0%), 반도체(4.7%)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, 선박($\Delta 51.5\%$), 석유제품($\Delta 40.3\%$), 석유화학($\Delta 25.7\%$), 일반기계($\Delta 15.5\%$), 자동차($\Delta 9.1\%$) 등 대부분 산업이 감소
- 지역별로는 對베트남(32.4%) 수출은 증가하였으나, 對중국($\Delta 8.8\%$) · 일본($\Delta 24.4\%$) · 유럽연합($\Delta 20.8\%$) · 미국($\Delta 4.4\%$) 등 수출은 감소
- 7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등에서 감소했으나, 서비스업 ·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.5% 증가

참고자료

주요 경제지표

① 외환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8.28	'15.9.4	전주비
₩/US\$	1,088.5	1,173.6	1,193.4	19.8
₩/100¥	910.12	969.4	1,000.1	30.7
CNY/US\$	6.2020	6.3894	6.3559	△0.0335
¥/US\$	119.09	121.1	119.3	△1.8
US\$/€	1.2174	1.1258	1.1135	△0.0123

② 채권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8.28	'15.9.4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10	1.72	1.65	△0.07
미국 국채(10년)	2.17	2.18	2.12	△0.06

③ 주식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8.28	'15.9.4	전주비
한국 KOSPI	1,915.59	1,937.67	1,886.04	△51.63
미국 DJIA	17,823.07	16,643.01	16,102.38	△540.63

④ 해운시장

구 분	'14년말	'15.8.28	'15.9.4	전주비
BDI 지수*	780	903	875	△28
HRCI 지수**	538.1	669.0	666.0	△3

*Baltic Dry Index: 벌크선 운임지수

**Howe Robinson Container Index: 컨테이너선 용선지수

⑤ 유가

(US\$/배럴)

유 종	'14년말	'15.8.28	'15.9.4	전주비
WTI유 현물	53.27	45.22	46.05	0.83
Brent유 현물	57.33	50.05	49.61	△0.44
두바이유 현물	60.11	48.70	47.58	△1.12

- ◆ 최근 금융불안과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 살펴보고,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

1. 중국 경제현황과 정부의 정책대응

- 중국식 '사회주의 시장경제' 체제 구축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
 - 중국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9.9%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.
 - 2010년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GDP 2위, 수출국 1위 지위를 차지
 - 흑묘백묘론(黑猫白猫論), 선부론(先富論) 등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여,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중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
- 최근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이 모두 불안양상을 보이며 경착륙 우려 대두
 - 중국은 기존의 수출·투자 주도형 고도성장 전략의 한계에 직면하여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.
 - 2014년 경제성장률은 1990년(3.8%) 이후 가장 낮은 7.4%로 떨어졌고, 금년 상반기에는 7.0%를 기록
 - 특히, 주식시장 과열과 폭락사태 발생 등 금융불안 양상이 나타남.
 - 지난해 11월 후강통(沪港通) 등 자본시장 개방조치 단행 이후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가 금년 6월 이후, 실물경기 부진, 수익실현 매물 급증 등으로 폭락장세로 전환

<연간 GDP성장률>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(NBSC)

<상하이 주가지수>



자료: 중국신화왕(新華網)

- 적극적인 경제개혁 정책 추진과 소비진작을 통해 안정적 성장 도모
 - 중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과잉투자과 소득불평등* 확대이며, 중국 정부는 과잉설비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추진하고 있음.

* 중국 지니계수는 위험수준인 0.4를 상회하는 0.496으로 미국(0.480)보다 높은 수준

- 지속적인 중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'투자과 제조업'에서 '소비와 서비스업'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선회
 - 구조개혁을 위한 8대 경제개혁 과제(2015)로 ① 금융개혁, ② 재정개혁, ③ 세제개혁, ④ 국유기업개혁, ⑤ 가격개혁 등을 추진 <첨부자료 1 참조>
 - 또한, 소득분배 개선과 소비 진작을 위해 ① 최저임금 인상*, ② 생활보장 개선, ③ 신흥도시에 대한 소비촉진 정책 등을 적극 실시 <첨부자료 2 참조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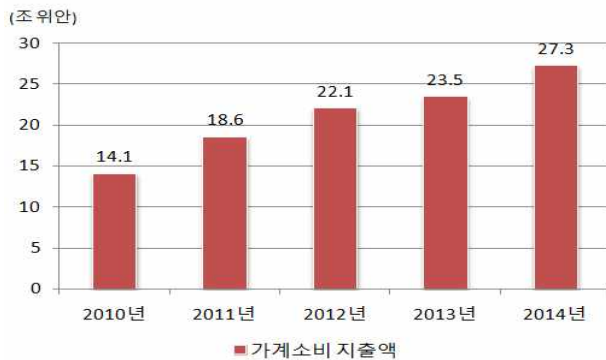
* 중국이 2011~15년중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평균 13%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, 2014년 충칭, 청두 등 10개 신흥도시 임금 인상률이 18%를 기록(이중 다칭은 31.8%로 가장 큰 증가율 기록)

2. 주요 부문별 현황 및 진단

가. 소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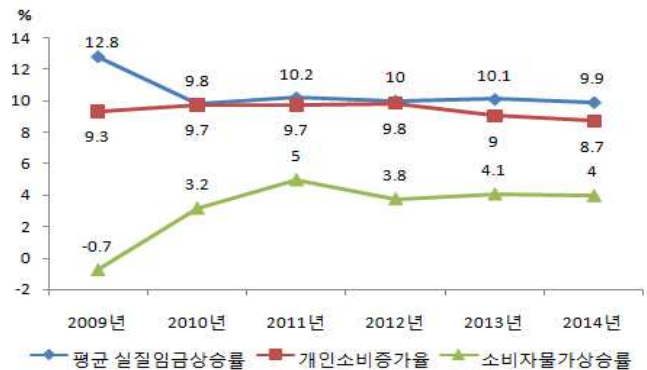
- 소비가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
 -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 중심의 민간소비임.
 - 금년 상반기 소매판매 증가율이 10%대를 유지하는 등 소비가 꾸준히 증가

<가계소비 지출액>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 및 Bloomberg

<평균 실질임금상승률·개인소비증가율>



자료: EIU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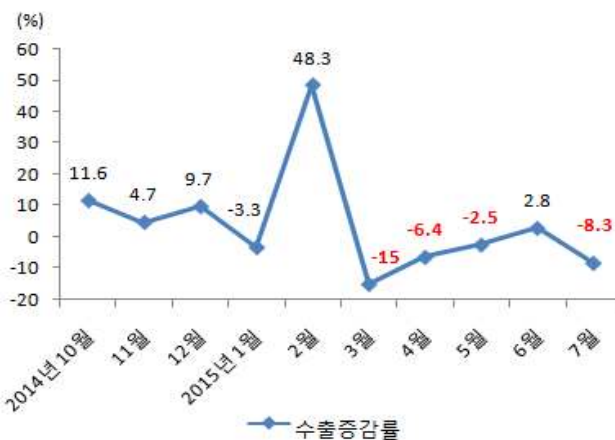
- 또한, 상반기 서비스업의 GDP비중이 49.5%로 제조업(43.7%)을 상회하며 내수경기의 버팀목 역할
- 최근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한 이유도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 - 중국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%에 불과하나 증시투자의 약 80%가 개인투자자로 증시급락은 소비에 악영향
 - 더불어,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붕괴 시 큰 폭의 자본 감소와 소비 위축은 불가피

나. 수출

□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

- 중국은 지난 10년에 걸쳐 위안화 가치가 33% 절상되며 수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됨.
 - 금년 7월에도 8.3% 감소하며 등 지난 3월(-15%)에 이어 다시 큰 폭으로 하락
- 이에 최근 위안화 가치를 절하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임.
 - 지난 8월 11일과 12일에 각각 1.9%, 1.6% 절하하였고, 13일에도 1.11% 추가 절하하여 3일 만에 위안화 환율이 6.11에서 6.40으로 4.66% 상승
- 이와 함께, IMF 특별인출권(SDR) 바스켓(기축통화)에 위안화를 포함시켜 국제결제통화 지위를 확보하고자 함.

<수출증감률>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 및 해관총서

<투자증가율>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 및 해관총서

다. 투자

- 과잉설비 투자로 설비가동률이 급락하여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
 - 중국은 과거 전 공업분야에 걸쳐 과잉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고, 최근 국내외 수요감소로 설비가동률이 크게 낮아짐.
 - 전체 제조업 가동률이 50%대로 낮아졌고, 특히 철강, 시멘트, 조선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태양광 패널 등 신홍산업 부문도 낮은 설비가동률 저하 문제가 심각
 - ※ 2014년 중국의 GDP 대비 투자비중은 47.7%로 전세계 국가평균인 22.1%를 두 배 이상 상회
 - 중국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철강 등 과잉생산 산업에 대한 **낙후설비 생산중지, 퇴출장려** 등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.
 - 특히,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19개의 낙후된 생산설비를 폐쇄하였고, 작년에는 2017년까지 철강, 시멘트, 전해알루미늄, 평판유리, 조선 등 5대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신규설비 증축을 전면 금지
 - 아울러, 국내 과잉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유휴설비의 해외수출 및 이전을 위하여, **일대일로1)**, 베이징-톈진-허베이 공동발전, 장강 경제벨트 등 3대 전략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할 예정임.

3. 파급 영향

- (세계경제)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'China Cycle'의 역류 현상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에 악영향 우려
 - (리스크) 중국에 의한 세계경제성장 주기를 뜻하는 'China Cycle'의 역류현상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 - (선진국경제) 미국·유럽연합(EU) 등 선진국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낮지만, 중국 소비시장 위축 시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는 불가피

1) 육상 교통로(실�크로드 경제지대, 一帶)와 해상교통로(21세기 해상실�크로드, 一路)를 결합한 거대경제권 개발 계획으로 일대(一帶)는 중서부 개발과 중앙아시아 진출, 일로(一路)는 중국 남부지역 개발과 동남아 진출의 연계로 해석

○ (신흥국경제) 가장 큰 피해자는 자원부국들이며 중간재 수요 감소로 동아시아 국가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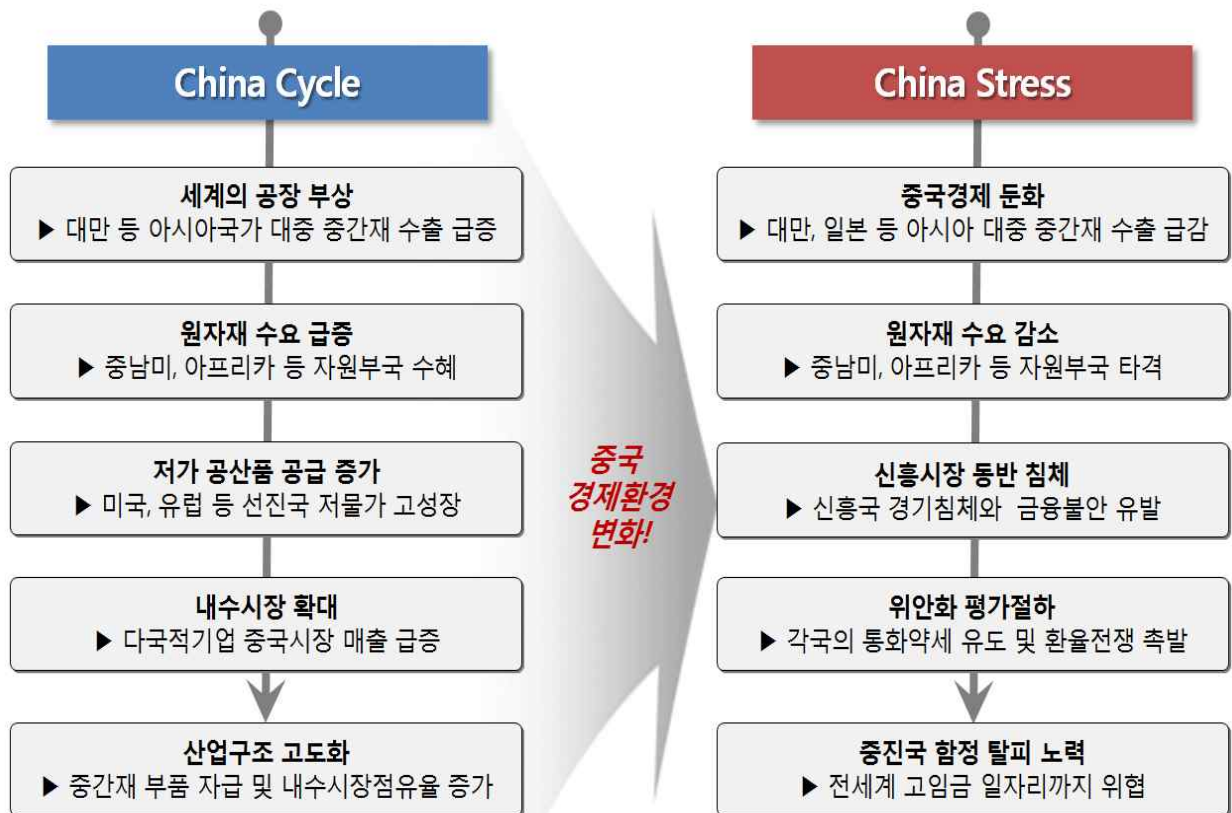
- 브라질, 칠레, 남아프리카공화국, 호주 등 원자재생산국은 중국의 투자 감소에 따른 자원수요 축소로 경제에 큰 타격

- 한국(72%), 대만(74%), 일본(60%), 말레이시아(58%) 등 대중국 중간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에 적신호

※ 금년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대중 수출은 각각 7.2% 및 10.8% 감소

- 반면, 인도와 폴란드,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아 타격은 제한적

<'China Cycle' Vs 'China Stress'>



자료: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재작성

- (한국경제) 한국은 중국 성장세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
 - (성장률) 중국 경제성장률이 7%대를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다만,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%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은 각각 1.0%p, 4.0%p 하락할 것으로 전망(현대경제사회연구원)
 - (국내산업)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업은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, ICT, 석유화학, 철강 등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 - 특히,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ICT(51.0%)와 석유화학(45.7%)은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과 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큼.

<첨부 자료 3 참조>

4. 중국경제 전망 및 시사점

- 정부의 구조개혁과 소비진작 노력으로 6~7%대 중속성장 지속 전망
 -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을 구조개혁 시기의 성장률 감속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어, 내수·서비스 주도형 성장 전략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, 투자 등 주요 부문별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 -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 해외 경제기관들은 중국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성장률 둔화를 피할 수는 없으나,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개혁 노력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함.
-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 촉진과 서비스업 투자확대 필요
 - 중국은 소비시장의 질적·양적 성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므로, 우리나라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 -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반제품 및 부품의 비중이 약 75%에 달하나 소비재 비중은 3%에 불과

○ 아울러, 최근 교육, 의료, 레저 등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,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- 2015년 상반기 누적 기준 중국진출 기업의 약 70%가 제조업에 진출해 있으나, 교육·외식업·여가 등 서비스업 진출은 11%로 여전히 저조

□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에 대응한 수출대상국 다각화 추진

○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고, 최근 들어 대중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,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인도 등 신흥국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.

- 2014년말 기준 대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.4%로 제2위 수출국인 미국(12.3%)의 2배 이상을 차지

- 첨부 : 1. 2015년 중국의 8대 경제개혁 과제
2. 중국 주요 신흥도시의 소비촉진 정책사례
3. 중국 경제 경착륙 시 우리나라 산업별 영향. 끝.

확인자	팀 장 김 영 석
작성자	책임조사역 박 종 국

구 분	주요 내용
금융서비스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본시장 및 금융 개혁 - 중소 금융기관의 농촌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- 민간은행 설립 적극 추진
투자·용자 체제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·용자 체제 개혁을 위한 세부 규정 개선 - 투자 심사, 승인,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- 투자 프로젝트 심사 및 승인 시스템 개혁 적극 추진
재정·세제 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앙 및 지방 부처의 예산결산 공개 및 이전지출 개혁 - 세금우대 정책 및 자원·환경 보호세 도입
가격개혁 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약품, 철도, 화물, 우편 등 가격 통제 철폐
기업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유기업 개혁 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실행 - 국유기업 내 혼합소유제 실현 및 비국유자본의 국유기업 투자지분 보유 및 인프라 투자 장려
농촌 및 토지제도 개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촌 토지 징수 관련 시범적 개혁 실시 - 농촌 집체 경영 건설용 토지 시장화 - 농촌 토지 사용권을 사용한 대출담보 허용 시범적 실시
법치행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, 투자 및 토지 관리 등과 관련한 법·규정 정비 -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여론 청취, 리스크 평가 강화 - 행정집행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
정부 심사 및 승인 절차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심사 권한을 하위급 정부에 이양하거나 폐지 - 절차 개선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협력 강화 - 시장접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

자료: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각종 언론 기사를 참고하여 재작성

구 분	상세 내용
충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▪ 해외 전자상거래서비스 시범플랫폼 운영
청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도·소매 유통기업 판매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▪ 보시판촉활동 개최 지원 및 보조금 제공
허페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민생활 서비스 소비촉진 정책 실시 ▪ 농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망 개선
창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물류센터, 대형쇼핑몰 등을 건설하여 중부지역 소비거점 육성 ▪ 호텔,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유치 및 지역내 관광명소 개발
정저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외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실시 ▪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
시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재활용품 매매시장 활성화 및 품목별 도매시장 조성 ▪ 농산품판매 전시회 등 주제별 판촉 행사 기획 및 개최
자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관광명소, 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추진 ▪ 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
다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통기업 진출을 위한 행정서비스, 토지혜택, 정부 보조금 제공 ▪ 데이터 통합, 도시관리 등 스마트 시티 사업 추진
난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역에 특화된 상권 육성 ▪ 유통구조 개선 정책 실시

자료: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각종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재작성

구 분	상세 내용
조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 조선업이 다소간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, 기술력이 중시되고 있어 한국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- 2014년 수출액 388.9억달러 중 대중 수출은 3.0%인 11.8억달러
해외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우리 기업들의 수주경쟁력이 다소 저하될 우려 - 2014년 수주액 660.1억달러 중 대중 수주는 1.2%인 7.9억달러
철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의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수출 확대 노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 - 2015년 기준 중국 공급과잉량은 약 25억 톤으로 추정 - 2014년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액 355.4억달러 중 대중 수출은 13.3%인 47.5억 달러
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중국 수출과 신흥국에 대한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- 2014년 중국 현지생산은 한국 전체생산(해외생산 포함)의 20.0%인 178만 4천대 - 2014년 수출액 489.2억달러 중 대중 수출은 3.7%인 18.0억달러
석유화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 자급률 상승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이중고를 겪을 전망 - 2014년 수출액 482.1억달러 중 대중 수출은 45.7%인 220.4억달러
ICT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국과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전망 -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, 중국경제 둔화에 따른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로 신흥국에서 국내기업과 경쟁심화 예상 - 2014년 수출액 1,738.8억달러 중 대중 수출은 51.0%인 886.0억달러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